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Cover Story



7107개의 매력을 발견하다

■ 사진/이진옥 기자·글/박상현 기자, 협찬/필리핀관광청, 세부머시리항공
광활한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는 섬의 개수만큼, 필리핀에는 다양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빛과 어둠, 동양과 서양, 현대와 전통, 바다와 산처럼 도저히 공존하지 못할 것 같은 가치들이 이곳에 모여 융화돼 있다. 개성 넘치는 수많은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자의 몫이다. 물론 필리핀의 자연과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꺼내 보일 준비가 돼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비행기 티켓과 가벼운 옷차림뿐이다.

니노이 아키노 공항까지 마중 나왔던 관광청 직원이 차에 타면서 던진 한 마디는 ‘마닐라의 교통 정체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Manila traffic jam)’였다. 아무리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금요일 오후, 마닐라의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은 움푹달싹하지 않았다. 승용차는 기본이고 군용 트럭을 개조한, 필리핀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인 형형색색의 ‘지프니’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사이드 카를 붙인 트라이시클, 요란스럽게 경적을 울려대는 대형 버스까지 더해져 난장판을 이뤘다. 중앙 분리대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차선도 없어서 시내는 무질서의 전형을 보여줬다.

앞차의 꼬무니만 보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양을 보니 한숨과 탄식이 흘러 나왔다. 서울이나 방콕의 정체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마닐라는 더욱 심각한 듯했다. 간선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아서 어디론가 움직이려면 1시간은 족히 걸렸다. 해발고도가 워낙 낮아서 지하철 건설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메트로’라 불리는 전철은 고작해야 노선이 3개뿐이니 사람들이 도로로 몰릴 수밖에 없다. 마닐라의 도로 위에서는 만사를 잊고 몸을 뒤로 젖힌 채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길만 혼잡한 것이 아니다. 사실 ‘마닐라’라는 도시 자체가 어지럽고 혼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오래된 듯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정리돼 있지 않아 어수선한 느낌이다. 한편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빌딩과 레스토랑, 쇼핑센터가 군집해 있고, 바로 옆에는 쓰러질 것 같은 가옥들이 웅기쭈기 지붕을 맞대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인구 1600만 명의 도시는 문어발처럼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웬만큼 큰 동남아시아의 도시라면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다.

마닐라가 여타의 도시와 구별되는 점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는다. 여유 있게 생각하고, 천천히 행동한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유독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들은 기뻐도 웃고 슬퍼도 웃고, 언짢아도 웃으려 노력한다. 삶에 찌들어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눈이 마주치면 방긋 웃어준다. 미소 띤 얼굴에 성내거나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소유하지 못한 마닐라만의 매력은 이렇듯 친절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길이 막힌다고 해서 조바심이 생기지 않는다. 여행은 행복해지려고 떠나는 것이다. 마닐라에서는 그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Intramuros
성벽에 갇힌 스페인 도시

이곳에서 마닐라가 태어났고, 오늘날의 필리핀이 시작됐다. ‘성 안의 도시(City within the Wall)’ 라는 뜻의 인트라무로스는 스페인이 마닐라를 개발하면서 자국민의 주거와 행정을 위해 건설한 도시였다. 하지만 훗날 스페인에 저항했던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호세 리살(Jose Rizal)이 공개 처형된 비극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와 경건한 마음으로 그를 기리고 돌아간다.



Intramuros

'잘 있거라,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받는 태양의 고향이여(Farewell, my adored Land, region of the sun caressed)', 리살 박사가 생의 마지막 날 밤, 알교를 램프에 적어 여동생에게 전했던 시의 첫 대목이다. 필리핀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시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인물의 애뜻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산티아고 요세의 박물관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글자 역시 리살의 시다. 학생들은 무심히 글자를 밟고 지나가지만 태도는 차분하고 진지하다. 리살은 지금도 필리핀 민족 정체성의 정점이자 진수이다.



Tropical Nature

해변과 도시가 필리핀의 전부는 아니다. 강렬한 태양과 따뜻한 대기는 신비롭고 이국적인 자연을 잉태했다. 마닐라를 빠져나오면 일이 무성한 열대우림과 고요히 흐르는 강, 녹색 물결이 넘실거리는 눈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루손 섬의 북부 지방으로 가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목가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Boracay

천국의 또 다른 이름

잔잔하게 즐깁히는 파도는 햇빛을 반사해 보석처럼 빛났다. 작은 배를 타고 섬을 일주하는 동안 심연으로 뛰어들고 싶은 유혹과 맞서야 했다. 이미 그늘린 살갗을 더 겁게 태울 것 같은 강렬한 태양을 피해 투명한 바닷속으로 잠입하고 싶었다. 심신을 괴롭히는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숨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굳이 바다에 몸을 적시지 않아도 보라카이에서는 일상을 잊게 된다. 보라카이는 욕구 불만의 허전한 영혼을 채워주는 안전한 피난처다.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정답이 없어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 비용과 시간이 넉넉지 않지만 근처의 열대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려는데 과연 어디가 좋겠느냐, 는 친구의 어리석은 물음이다. 우문에 현답을 해줘야 할 텐데 만만치가 않다. 모래사장엔 파라솔이 꽃혀 있고 기다란 의자에 누워 일광욕을 즐길 만한 곳이라 하면 어렵짐작으로 몇 군데가 떠오른다. 한반도에서 동심원을 그려가며 후보군을 압축해본다.

역시 선두주자는 태국의 여행지들이다. 태국으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면 한 번쯤은 들렀을 파타야를 필두로 푸켓, 꼬사무이, 꼬창, 끄라비 등 여행 대국의 명성에 걸맞게 추천할 만한 명소가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랑카워나 코타키나발루가 있고, 베트남에는 나트랑이, 인도네시아에는 발리가 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휴양지들이다. 모두 시설이 뛰어난 유수의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필리핀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지역들을 꼽을 수 있다. 보홀과 막탄 섬이 인접해 있고 직항이 있어서

편리한 세무, 하층베이에 비건필 만한 흥성을 사랑하는 벨니노, 관덕안 유식을 모상하는 은눈의 마을 시팔라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새하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보라카이를 빼놓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알려져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명불허전인 법이다. 해변, 햇볕, 해양 스포츠, 나이트라이프까지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 그다지 멀지도 않다. 그래서 결국 고심 끝에 보라카이로 답변을 정할 듯하다. 보라카이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전해주는 안성맞춤의 섬이다.

아령이나 뼈다귀처럼 가운데는 잘록하고 양쪽 끝자락이 넓적한 보라카이에는 모래 해변이 잘 발달돼 있다. 세계에 이름난 화이트 비치(White Beach) 외에도 ‘카이트보더의 성지(聖地)’인 블라복 비치(Blabog Beach)와 한때 작은 조개껍데기가 많았던 푸카셀 비치(Puca Shell Beach)가 있다. 블라복 비치와 푸카셀 비치는 상대적으로 인파가 적고 아는 사람만 가는 은밀한 장소다.

보라카이에 체류하면서 카이트보드에 흠뻑 빠지고 싶은 이는 블라복 비치에 있는 사설 교육소를 찾아가면 된다. 새파란 하늘을 수놓는 카이트보드의 행렬을 쳐다보고 있으면 동참하고픈 충동이 일어난다. 이리저리 부유하는 대형 카이트의 움직임이 흥미로울 뿐이다. 바람에 몸을 의지해 물결을 가르는 보더들의 모습은 짜릿함과 상쾌함을 선사한다.

푸카셀 비치는 휘방꾼 없이 혼자만의, 혹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행객에게 적합하다.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 호객꾼이 없어서 더욱 좋다. 해변에 들어서기 전 윗부분을 따낸 신선한 코코넛과 책 한 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챙겼다면 준비를 마친 셈이다. 그늘을 찾아 들어가 돛자리를 펴고 누워서 코코넛 음료를 다 마실 때까지 여유롭게 쉬면 된다. 책을 읽다 졸리면 자고, 따사로운 햇살이 깨우면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정해진 일과도 없고, 딱히 봐야 할 경승지도 없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Majestic Sunset

Blolrialclaly

보라카이에서의 첫날, 하늘은 석양을 허락지 않았다. 태양은 바다 저편의 구름 뒤로 숨어서 하늘을 붉게 물들일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다음날에는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새빨간 불덩이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해넘이는 너무나도 빠르게 막을 내렸다. 해가 지고 나자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해변을 서성거렸고, 요트는 귀항을 재촉했다.



Native of Blolrialclaly

블라복 비치의 뒤편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 원래부터 보라카이에 살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촌락이다. 키가 작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이들은 짙은 집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꼬마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출현이 두려운지 증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진기를 들이대면 잔뜩 긴장하거나 겁을 먹었다. 어린애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흘러 나왔다.



Exotic Beach

Blolrialclaly

밤의 화이트 비치는 낭만적이다. 모래 해변은 어느새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탁자에 놓인 희미한 촛불이 밝아졌다. 잠시 후면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밴드의 음악소리가 합쳐져 시끌벅적해질 터였다. 사람들이 밀어닥치기 직전, 정적 속에서 평화로운 화이트 비치를 감상했다.



philippines Information

기본정보 필리핀의 면적은 약 30만km²이고 인구는 약 8500만 명이다. 각각 남한의 3배, 2배가량이다. 필리핀은 북에서 남으로 1850km에 걸쳐 7000개 남짓의 섬으로 이루어진 탓에 실제로는 더욱 크게 느껴지며, 해안선의 길이는 3만6289km로 미국의 2배에 달한다. 섬나라이므로 육지상의 국경은 없으며 북쪽으로는 대만, 홍콩, 중국이 인접하고 남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과 가깝다. 필리핀 제도는 크게 3그룹으로 나뉘는데 북쪽부터 루손, 비사얀, 민다나오라고 불린다. 마닐라는 매우 현대적인 도시지만 루손 북부 산악 지대에서는 원시 부족들이 수백 년 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스페인, 미국 등 서구 문명의 지배를 받아와서 가톨릭을 믿고 영어를 사

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민족, 종교, 언어가 모두 다양한 편이다. 민족은 말레이족이 다수이며 중국계, 인도네시아계 등도 많다. 종교는 가톨릭 신자가 85%에 이르지만 민다나오 섬에는 무슬림 신봉자가 모여 살고 있다. 표준어는 영어와 타갈로그어이며 지역별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나, 큰 도시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현재 한국인은 필리핀 입국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직항을 띄우고 있는 항공사는 세부퍼시픽항공, 필리핀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이다. 세부퍼시픽항공은 인천-마닐라 구간 주 7회, 인천-세부 구간 주 8회, 부산-세부 구간에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최근 아시안스피릿항공이 인천-보라카이(칼리보), 인천-다바오 구간의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비행 소요시간은 약 4시간이다.

현지교통 섬 안에서는 버스, 다른 섬으로 건너갈 때는 항공을 이용한다. 기차는 마닐라에서 루손 남동부로 가는 노선이 유일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든 도시를 벗어나려면 버스가 유용하고, 시내에서는 택시나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프니는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정해진 경로를 순환하다가 어디서나 승객을 태우고 내려준다. 마닐라 시내에서는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데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서 교통 체증이 심한 마닐라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35페소이며 200m마다 2.5페소가 추가된다. 필리핀 섬들을 오가는 국내선은 세부퍼시픽항공, 필리핀항공, 아시안스피릿항공, 에어필리핀 등이 운영하고 있다.

비자, 환율, 전압, 시차 21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장기간 체류하려면 필리핀 대사관에 59일 관광 비자를 신청하거나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면 된다. 현지에서는 한 번에 30일씩 비자를 연장해주는데, 최장 1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필리핀의 화폐 단위는 페소(P)이다. 2007년 3월 중순 현재 1페소는 약 19.5원이다. 보통 1페소에 20을 곱하면 계산하기 편리하다. 페소는 인천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바꿀 수 있지만 500페소와 1000페소로만 환전이 가능하다. 필리핀에서는 작은 상점을 제외하면 달러도 통용되기 때문에 페소와 달러를 고루 갖고 가는 것이 좋다. 팁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미리 1달러짜리를 많이 준비하면 편하다. 필리핀의 전압은 220V지만 콘센트는 110V처럼 막대기 모양이다.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느려서, 한국이 정오일 때 필리핀은 오전 11시다.

전화, 인터넷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마닐라를 비롯한 대도시에는 PLDT, 보라카이 등지에는 SMARTalk 전화가 많다. 전화카드는 100~500페소 내외이며 국제전화 요금은 1분당 400원 정도다. 호텔에서는 1분당 3000원의 요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는 00을 누른 뒤 지역 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콜렉트콜 번호는 10587이다. 공항에는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콜렉트콜 전화기가 설치돼 있다.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에는 인터넷 카페들이 많다. 비용은 1시간당 20페소 내외다.

기후 필리핀은 계절이 따로 없고 우기와 건기로만 나뉜다. 일반적으로 건기는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우기로 분류된다. 필리핀을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한국이 겨울일 때로 아주 덥지 않고, 축제가 자주 열려서 볼거리가 풍성하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고 태풍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정보 필리핀관광청 www.wowphilippines.or.kr

SM 몰 오브 아시아(Mall of Asia)

일명 '메가 몰'이라 불리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다. 지난해 5월 21일에 문을 열었으며 2층 건물의 내부에는 상점,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필리핀 유일의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와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 슈퍼마켓도 따로 마련돼 있다. 고급 제품보다는 중저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 1년에 사흘간 2차례 정도 50~70%에 달하는 세일을 실시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몰 오브 아시아에서 쇼핑을 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보낸다.

www.smprime.com.ph

출입국 심사

필리핀 공항에서의 짐 검사는 무척 까다롭다.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액체와 젤류의 반입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국내선에서는 MP3와 건전지, 이어폰도 기내로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공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마닐라 국내선 공항은 400페소이고 카티클란 공항은 10페소다.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수

하물 안전 검사를 하고 발권 전에는 항공기에 실을 수하물의 무게를 확인한다. 티켓을 받은 뒤에는 750페소의 공항세를 지불하고, 출국 심사와 기내에 갖고 들어가는 수하물 검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항에 가는 것이 좋다. 보라카이의 해양 스포츠 보라카이는 단지 보고만 있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섬이다. 화이트 비치의 거닐다 보면 외국인을 상대로 코팅한 작은 종이를 들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라며 말을 거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의 권유에 따라 한 번쯤 해양 스포츠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물론 흥정은 필수다. 최근 보라카이의 해양 스포츠 가격은 패러세일링이 15분에 50달러, 제트스키가 30분에 2000페소, 바나나 보트가 15분에 250페소이다. 블라복 비치에서는 화이트 비치와는 달리 전문적인 카이트보드 상점들이 많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드서핑과 카이트보드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빌라 에스쿠데로 박물관

빌라 에스쿠데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농장이다. 이곳의 박물관에 들어가면 필리핀의 부자가문이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전시물이 관심을 끈다. 1층에는 예수와 제자들의 조각상이나 축제에 사용됐던 마차처럼 종교와 관련된 물품과 곤충, 동물의 박제, 필리핀 소수 민족을 그린 그림 등이 있다. 2층에는 필리핀의 옛날 화폐부터 토기, 해골, 금팔찌, 반지,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과 손가락 등 흥미로운 물건들이 전시돼 있다. 만물상 같아서 사전지식이 없어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루호 산 전망대(Mt. Luho View Deck)

블라복 비치에서 멀지않은 산길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온다. 그리 높지 않지만 걸어가면 40분쯤 소요된다. 루호 산 전망대의 망루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보라카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앞으로는 블라복 비치와 있고, 뒤로는 페어웨이 앤 블루워터 골프장이 자리한다. 전망대 입구에는 가슴에 하얀 깃털이 있는 필리핀 독수리, 야생 고양이, 원숭이도 있어서 눈요기가 된다. 입장료는 50페소다.

음식

‘간식을 포함해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은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필리핀에서는 여러 문화가 혼재돼 있는 만큼 세계의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태국의 톰얌쿱과 비슷한 시큼한 생선 수프, 삼겹살에 양념을 발라 구운 요리, 롱가니사라 불리는 소시지 등이 대표적인 필리핀 음식이다. 필리핀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편이다.

[▲ top](#)